



농수산물 수출

Zoom In 93호

I

**‘느타리버섯’
수출 맞춤형 재배 기술 개발**



II

**수출용으로 딱 좋은
‘국산 버섯 2품종’ 개발**



III

**호주에 한국산 딸기 생과실 21/22 시즌
수출선과장, 참여농가 등 정보 제공**



농수산물 수출 Zoom In 93호 2021. 12. 31(금)

‘21.11.30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102.5억\$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9.8% 1,389.6백만불	13.9% 6,352.3백만불	21.3% 2,513.0백만불
+ 인삼류, 김치, 포도, 돼지고기 - 닭고기, 버섯류, 파프리카	+ 과자류, 커피조제품, 음료, 면류 - 연초류, 주류, 생우유, 캔디	+ 김, 참치, 굴, 대구, 명태 - 미역, 고등어, 붕장어, 바지락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미국 1,508.9백만불(9.5%)	물류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류 인기 중심 가정·간편식 수출 호조, 김 수출 증가	과자류(14.2%), 소스류(13.6%) 김(11.5%), 쌀가공식품(22.1%) 음료(△3.2%), 라면(△2.8%)
중국 1,841.1백만불(28.5%)	외부활동 증가 영향 음료 등 수요확대와 광군제기간 소비증가로 상승폭 확대	김(38.5%), 과자류(39.1%) 음료(48.2%), 인삼류(28.4%) 라면(△3.7%), 소스류(△4.7%)
신남방 (ASEAN + 인도) 2,092.4백만불(19.5%)	외출제한조치 영향으로 간편식(라면, 커피, 과자, 만두, 빵)수출 증가	참치(3.5%), 음료(11.6%) 라면(11.0%), 커피조제품(26.6%) 장류(△12.3%), 닭고기(△17.9%)
일본 1,877.8백만불(3.2%↑)	김치, 라면, 소스류, 식초, 쌀가공식품 등 가정식 수출 호조세	김치(14.8%), 참치(20.2%) 식초(56.2%), 라면(30.7%) 김(△14.6%), 주류(△8.2%)
EU + 영국 632.5백만불(24.5%↑)	높은 운임에도 불구하고, 김치, 라면, 김, 참치 등의 수출호조로 고성장세 지속	참치(25.9%), 라면(22.9%) 김(49.8%), 소스류(50.6%) 커피조제품(△13.7%), 당류(△8.5%)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93호 2021. 12. 31(금)

품목별 이슈

* 실적 : '21.1.1 ~ 11.30

□ 인삼

- (미국 32.3, 32.9 ↑) 아마존 등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 진입, 인기 증가세에 일반 식품 바이어까지 유통 확대 추세
- (중국 89.8, 28.4 ↑) 건강식품 관심 증가 해외 면세 구매 제약 광군절(11.11) 대비 현지 재고 확보로 수출 증가
- (일본 30.5, △6.7) '21년 도쿄올림픽 개최 특수 기대한 현지 바이어 '20년 4분기 발주 급증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수출 감소

234.0백만불(18.3%)

주요 수출국 : 중국(89.8백만불, 28.4%), 미국(32.3, 32.9%), 일본(30.5, △6.7%), 베트남(24.2, 34.2%), 홍콩(20.3, △5.5%), 대만(17.8, 14.3%)

□ 포도

- (베트남 6.9, 25.0 ↑) 주 소비지역인 호치민시의 봉쇄 조치(약 4개월) 이후 수출여건, 소비심리 모두 회복
- (중국 6.9, 25.0 ↑) 타국 대비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소비위축 양호하고, 명절 이후 연이은 쇼핑축제 기간으로 고급 농식품 수요 증가

30.5백만불(24.1%)

주요 수출국 : 홍콩(7.0, 38.1%), 중국(6.9, 25.0%), 미국(2.2, 20.1%), 싱가포르(1.8, 26.6%), 캐나다(1.4, 3.7%), 태국(1.2, 30.9%)

□ 커피조제품

- (인도네시아 45.4, 43.6 ↑) 젊은 층 중심으로 캔커피, 컵커피 등 RTD 커피에 대한 수요 증가
- (중국 38.3, 19.7 ↑) 전반적으로 커피 소비가 늘고 있으며, 인스턴트커피 제품들의 판매 호조
- (러시아 32.2, 35.7 ↑) 서부시장 진출 확대, 제품 현지화 및 가정 내 커피 소비 트렌드 지속

285.4백만불(15.1%)

주요 수출국 : 인도네시아(45.4, 43.6%), 중국(38.3, 19.7%), 러시아(32.2, 35.7%), 미국(13.1, △23.6%), 대만(13.0, 28.1%)

□ 김

- (미국, 140.1, 11.5 ↑) 현지의 높은 수요로 수출 원활히 진행되어 수출 증가폭 확대
- (중국, 126.3, 38.5 ↑) 중국 내 마른김 가공산업 발전에 따른 마른김 수요 지속 확대로 수출 증가세 유지
- (일본 105.9, △14.6) 전년보다 낮은 김 쿼터계약에 따라 연중 전년대비 15% 내외 실적 감소 지속

626.2백만불(14.6%)

주요 수출국 : 미국(140.1, 11.5%), 중국(126.3, 38.5%), 일본(105.9, △14.6%), 중국(126.3, 38.5%), 러시아(42.7, 58.3%)

☆ 자세한 동향 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 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농진청 이슈



‘느타리버섯’ 수출 맞춤형 재배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은 느타리버섯 생산량을 높이고 저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수출 맞춤형 재배 기술을 개발했다.

느타리버섯은 다른 버섯에 비해 수출 환경에 맞춘 재배 지침이 미흡해 효율적인 생육 관리를 통해 저장성과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 느타리버섯이 자라는 영양체인 배지(톱밥, 사탕무박, 목화씨깻묵)의 비율을 기존 5:3:2에서 5:2.5:2.5로 조절했다. 버섯 수확 전 3일 동안 온도는 기존 15°C이하에서 12°C로 습도는 기존 90% 에서 75% 내외로 낮게 유지했다. 그 결과, 버섯 생산량은 1병당 116.5g에서 134.4g으로 15.5% 증가했고 저장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40일로 10일 연장됐다. 저장일 증가로 인해 나타는 버섯 냄새 발생도 줄었고 버섯 갓의 색도 진해져 상품성이 높아졌다.

농촌진흥청은 개발된 기술이 생산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배포하고 느타리버섯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수출 맞춤형 품종 육성과 재배 기술 연구를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기존>



<기술 적용 후>

수출용으로 딱 좋은 ‘국산 버섯 2품종’ 개발

농촌진흥청은 국산 버섯의 수출 확대와 품종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흰색 팽이버섯 ‘설한’과 흰색 느타리버섯 ‘세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흰색 팽이버섯 ‘설한’은 2020년 육성한 순수 국산 품종으로 버섯 발생이 고르고 균일하며 수량이 1병당 425g 정도로 안정적이고 밀동도 잘 뜯어져 수확과 포장이 쉽다. 특히 국내에서 재배되는 외국 품종에 비해 갓이 작고 두꺼우며, 대는 길고 단단해 저장과 유통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보통 팽이버섯의 보관 기간이 냉장 60일 정도 인데 비해 ‘설한’은 냉장 7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시장성 평가에서도 저장성이 뛰어난 수출 품종으로 씹는 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흰색 느타리 버섯 ‘세나’는 다발 형성이 우수해 수량이 1병당 157g 정도로, 기존 품종보다 24%나 많다. 특히 시장에서 선호하는 얇은 깔때기 모양의 갓과 곧고 긴 대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갓의 색깔이 회색빛이 도는 일반적인 느타리와 달리 흰색을 띄고 있어 흰색을 선호하는 유럽이나 미국 시장 공략에 알맞다. 소비자 대상 식미 검정에서도 모든 요리에 잘 어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며, 씹는 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2품종이 저장성이나 선호도, 씹는 맛 등이 우수한 만큼 앞으로 수출용으로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팽이버섯 '설한'>



<느타리버섯 '세나'>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21년산 한국산 참다래 대만 수출 가능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1년산 우리 농산물 중 참다래의 본격적인 대만 수출을 위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지난달 대만에 송부하였다. 양국간 합의한 요건은 대만 검역관이 한국에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만 검역관의 한국 파견이 어려워 현지조사를 한국 검역관이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대만에 송부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만에서 검토한 결과 수입 규정에 적합하여 수출이 가능하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21년산 한국산 참다래의 대만 수출이 가능해 졌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참다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검역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호주에 한국산 딸기 생과실 2021/2022 시즌 수출선과장, 참여농가 등 정보 제공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에 2021/2022시즌 한국산 딸기 수출을 위해 등록된 수출선과장, 참여농가 등 정보를 제공하였다. 기존에는 호주의 우려해충인 벚초파리 관리를 위해 MB 훈증소독 진행 및 딸기모무늬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육안검사 및 실험실정밀검사가 필수였다. 작년부터 완화된 요건인 벚초파리의 관리를 위해 트랩조사 실시하여 재배지에 무발생을 증명하거나 벚초파리 유입 방지시설이 있는 온실에서 재배, 딸기모무늬병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가 면제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산 딸기의 호주 시장으로 수출 촉진이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국산 농산물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